

더현대 착공에 이어 광주신세계·스타필드까지...

광주 도심 ‘대형 복합쇼핑몰 3종 시대’ 본격 개막

도시 구조 대전환 ‘가속도’...협상·행정절차 막바지 단계

“도시이용인구 3000만 시대...문화·상업 허브 도시 도약”

광주 도심의 상권·관광·정주 여건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대형 복합쇼핑몰 3곳의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더현대 광주’ 착공식을 시작으로 광주 신세계의 터미널 복합개발, 어등산 관광 단지 내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까지 개발 절차가 구체화되면서, 광주가 사실상 ‘복합쇼핑몰 3종 시대’로 진입하는 분위기에 들어섰다라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시는 이들 3대

사업을 통해 도시이용인구 3000만 명 시대, 체류형·관광형 도시 전환, 광주 도심 구조 재편이라는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20일 광주 북구 임동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서 착공식을 열고 더현대 광주의 디자인 콘셉트와 비전을 대중에게 처음 공개했다. 이번 행사는 시민·지역사회와 미래 도심 청사진을 공유하는 성격의 공개행사로 진행되며, 광주의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을 예고했다.

더현대 광주는 연면적 27만2955㎡, 영업면적 10만890㎡(지하 6층~지상 8층) 규모의 초대형 복합쇼핑몰로, 서울 여의도 ‘더현대 서울’보다 약 1.4배 크다. 쇼핑·문화·여가·엔터테인먼트 기능을 두루 갖췄으며, 완공 시 호남권 최대 복합몰이 된다.

사업자 측은 이미 지난 5월 복합몰 예정부지와 주상복합 예정지의 철거를 모두 마쳤고, 본격적인 착공은 다음달 중으로 예상된다. 2027년 말 준공·2028년 정식 개점이 목표다.

광주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관전터미널 일대의 복합화 사업도 본격 궤도에 올랐다. 광주시와 광주신세계는 최근 제5차 협상조정협의회를 열고 주상복합 면

적, 백화점 직결 통로, 공익시설 구성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협의를 이어갔다.

양측은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며, 조만간 열릴 6차 협의회에서 주요 사안을 최종 조율할 전망이다.

광주신세계가 6월 제출한 협상제안서에 따르면 전체 연면적 축소로 호텔 객실 수가 기존 250실에서 200실로 줄었고, 광주시가 제안했던 공연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신세계 측이 ‘국제행사를 소화할 수 있는 특급호텔’과 ‘공연장 건립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조정 여지가 생겼다.

광주시는 협상이 마무리되면 감정평가·공공기여 협상·인허가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내년 하반기 착공이 가능하

도록 행정 절차를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광주신세계는 이달 초 문화관·주차장 철거를 시작해 내년 4월 말까지 기존 시설 철거를 완료할 예정이다. 광천터미널 일대는 향후 광주 도심 상권의 핵심축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등산 관광단지 내 입점이 예정된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도 절차가 순조롭다. 총 860억원 규모의 토지비 가운데 37%인 318억2000만원을 이미 납부해 사업 의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민간 개발자인 신세계프라퍼티와 시정 조정 여지가 생겼다. 행사는 광주도시공사는 관광단지 조성 계획 변경 인허가 절차 이후, 내년부터 부지 조성과 건축 허가 등 착공 준비에

어등산 관광단지(41만7531㎡)는 2027년 착공, 2030년 스타필드·콘도·별감도서관 개장, 2033년 레지던스 완공을 목표로 장기 개발이 추진된다.

해당 사업은 광주 북구~광산구 라인을 잇는 서북권 핵심 관광축으로 평가되며, 개장 이후 연간 수백만명의 관광인구 유입이 예상된다.

광주시는 3곳의 복합쇼핑몰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광주의 관광·상업 기반이 단숨에 확장이 아닌 구조적 변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도시이용인구 3000만 시대’를 열어 세계가 찾는 문화·상업 허브 도시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20일 오후 광주 북구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서 열린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 착공식’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등 내빈들이 축하 발파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광주 첫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는 지하 6층, 지상 8층, 총 연면적 27만2955㎡ 규모로 조성되며 서울 여의도 ‘더현대 서울’보다 약 1.4배 큰 규모로, 2027년 말 완공해 2028년 정식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한전KPS, 미사용 물품 기부 ‘굿사이클링 캠페인’

굿윌스토어 협업...자원 순순환·장애인 일자리 창출

한전KPS가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기부하는 ‘굿사이클링 캠페인’을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8월 말부터 11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임직원의 동참으로 의류·잡화·생활용품·가전 등 미사용물품 600점 이상을 사회복지법인 말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굿윌스토어’에 기부했다.

또한 기부 물품과 함께 자원순환 및 장애인 고용 창출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300만원의 성금도 전달했다. 기부된 미사용 물품들은 전국 굿윌스토어에서 재판매돼 자원순환으로 인한 환경보호와 함께 장애인들이 직접 물품을 분류·제품화·판매 영업까지 도맡아 하는 만큼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연 사장은 “이번 캠페인은 임직원

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환경보호와 장애인 고용 창출에 일조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환경과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국민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KPS는 올해 지속 가능한 환경보존을 위해 탄소중립 그린캠퍼스 조성을 위한 ‘ESG Youth-lab’ 사업, 임직원 대상 ‘폐전기·전자제품 친환경 회수 캠페인’,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Save 영산강’ 프로젝트 추진 등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펼쳐왔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주신세계가 연말을 맞아 김장김치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광주신세계, 김장봉사로 이웃사랑 실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13곳에 김치 300박스 전달

㈜광주신세계가 연말을 맞아 김장김치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광주신세계는 20일 광주김치타운에서 이동훈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점 30주년 기념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은주 김장 명인의 교육, 김장 담그기 순으

로 진행됐다.

광주신세계 임직원들은 직접 담근 김장김치 300박스(1500kg)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복지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13곳에 전달했다.

광주신세계는 김장봉사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6일에는 백화점에서 쓰임을 다한 유니폼으로 만든 벤치를 기부했다. 전국 신세계백화점에서 사용하던 직원 유니폼이 디자인 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이를 활용한 벤치를 만들었다. 1만벌의 유니폼은 파쇄와 압축 과정을 거쳐 단단한 벤치로 재탄생했다. 광주신세계는 쓰임을 다한 옷이 시민들의 삶터로 재탄생했다는 의미를 담아 ‘리뉴(Re+New)’ 벤치라는 이름을 붙였다.

지난 8월에는 백화점 식품관에서 나온 폐식용유를 업사이클링해 재생비누를 만들어 지역 환경단체에 기부했다.

이동훈 대표이사는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기 위해 2023년부터 김치타운에서 김장을 하고 있다”며 “광주신세계 임직원이 만든 김장김치가 지역 이웃의 따뜻한 겨울 나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